

합격기
[제54회 행시 국제통상직 합격]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한다”



방 지 현

- 1984년 3월 생
-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학파 졸업
- 2010년(제54회) 행시 국제통상직렬 합격

I. 들어가며

공부를 시작할 때, 공부하는 중 힘들 때, 매너리즘에 빠져 늘어질 때 읽었던 합격수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도 합격을 해서 그런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새 합격자 발표가 났던 겨울을 지나 휘리릭- 여름이 되고 2011년 2차 시험까지 끝나버렸네요. 늦었지만 저의 수험생활을 정리도 하고, 시험 준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부끄럽지만 제 경험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 공부를 시작해서 2010년 2차를 세 번째 보던 해에 합격한 평범한 고시생입니다. (연수원에 들어와보니 세 번째 시험 때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집에서 공부해보고, 집 앞 독서실에서도 해보고, 학교 열람실에서도 해보고, 신림동에도 살아보고, 학교 고시실, 고시동 전부 경험했고, 중간에 회사 인턴도 했다가, 취직도 잠깐 준비했다가, 로스쿨도 기웃거렸던 굳지 않은 의지를 가진 고시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을 시험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기별,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II. 시기별 공부 방법

1. 당부 드릴 점

합격하든 사람이 100명이면 공부법도 100가지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생활패턴이나 선호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나 다른 합격생의 방법이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참고하시는 정도로 활용하시는 것은 좋을 것이기 때문에 합격수기도 많이 읽으시고 주위의 합격생들을 적극 귀찮게 하여 공통 기본 원칙을 뽑아놓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은 추천합니다.

2. 공부를 시작하며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행정고시를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막연히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면 어떨까, 국제공무원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은 했었고, 그러면 영어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서 토플을 준비하고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3학년 1, 2학기)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있으면서 국제공무원 쪽을 더 알아보다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어 “그럼 행정고시를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 겁도 없이!! 공부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깊은 고민 없이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중간 중간 힘들 때 마다 상당히 흔들렸고 그 극복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정말 하고 싶은 건지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결심이 확고히 하고!! 시작하

시기 바랍니다.

2. 2008년 첫 번째 시험(2007년 2월-2008년 7월)

공부 시작한 첫 해에는 행정법, 경제학, 국제법 기본강의와 행정법, 국제경제학, 국제법 1순환을 들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는(4학년 1학기) 행정법과 경제학 기본 강의를, 1학기 마치고 휴학을 하면서 여름부터는 국제법 기본강의와 행정법, 국제경제학 1순환을 들었습니다. 강의 듣고, 그 날 그 날 복습, (그 날 못 끝내면 그 다음 날까지 해서 복습을 끝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강의로 안 넘어갔어요) 강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는 혼자 기본서를 회독하며 복습하는 것으로 1년 가까이 보냈습니다. 즉, “강의+강의 복습+기본서 혼자 읽으며 복습”을 한 사이클로 과목마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목당 3번 정도 했습니다. 장소는 학교와 집 앞 독서실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순환 강의 따라가는 것보다 시간이 배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기본강의랑 1순환만 들으면서 답안지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기초를 다진 건데;; 남들보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 때가 수험기간 통틀어 공부를 가장 체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쌓아나갔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2월 1차 시험 이후부터는 실험동을 통학하면서 3순환 강의를 들었습니다. 행정법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는 전혀 고시 답안 같지 않은 창의적인;; 답안을 쓰다가 3순환이 끝날 때 즈음 최고답안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첫 시험이지만 혹시,? 하는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3순환은 행정법 밖에 듣지 못했고, 국제법과 국제경제학은 첫 강의 당일 수업이 폐강되면서(마이너 강사 수업을 선호하시는 분 이거 조심!!) 잠깐 페닉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8년 첫 시험은 행정법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험 시간표를 착각해서 둘째 날부터 시험을 보러 못 갔는데, 이것도 쓰면 정말 가슴 아프고 괴란만장한 사건이지만, 저 같은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 수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저 같은 경험 이후 공부 계속하시는 분 정말,, 파이팅 !!

2. 2009년 두 번째 시험(2008년 9월 - 2009년 7월)

비록 첫 시험이고, 합격 가능성도 거의 없었지만, 시험 자체를, 순전히 체실수로 보러 가지 못 한 이후 마음 다스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해서, 여름은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만 공부하면서 보냈고, 본격적인 고시 공부는 정확히 9월 1일부터 재개했습니다.

2009년 시험은 신림동 독서실을 하나 잡고 1차 시험 전까지는 통학, 그 이후부터 2차 시험 때까지는 신림동에서 거주하면서 공부했습니다. 2007년에는 혼자서 집이나 학교에서 동영상으로만 공부했는데 이 생활이 점점 게을러져서 집단 속에 속해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부터는 신림동에서 공부를 했고, 스터디를 많이 활용했고(PSAT 스터디, 영어스터디, 중국어스터디, 답안스터디) 학원 순환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국제경제학 1순환부터 국제법2순환, 행정법2순환과 각 과목 3순환).

규칙적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아침 8시에 스터디를 하였고, 독서실에서는 오후 11시에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지켰습니다. 학원수업, 학원 시험도 빠짐없이 전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의 이 기본원칙을 대체로 95% 이상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요일에는 오후 6시 정도까지만 공부를 했고, 일요일에 늦잠을 자는 것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날씨가 더워질수록 공부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한 기간을 통틀어 이 때의 5월, 6월이 가장 큰 슬럼프였다고 생각합니다. 시험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오전 내내 침대에서 뒹굴거리기도 하고, 갑자기 와플이 먹고 싶어 삼청동 카페에도 가고, 독서실 가려 나온 길에 버스를 타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때의 5월, 6월을 이렇게 보낸 것이 2009년의 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지고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피하거나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정면 돌파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가 안된다고 훌쩍 와플을 먹으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가는 대신 답안스터디를 하

나 결정해서 되든 안 되든 답안을 쓰면서 시간을 보냈다면 합격을 1년 앞당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판에 약간의 아쉬움을 가진 채 2차 시험을 치렀지만, 아쉬움보다는 시험 막바지의 힘든 기억이 너무 커서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공부를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 방학 때는 회사 인턴을 하면서 시험을 잇고 보냈고, 9월 복학해서 마지막 학기를 다니면서는 취업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때는 외국어도 공부하지 않고 정말 완전히 공부를 접었습니다.

그러던 중 2차 합격자가 발표되고 점수가 나왔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합격을 하였고, 제 점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컷과 0.2점 차이) 공부를 접기로 한 결정이 또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처음 공부 시작할 때의 확고한 결심이 정말 중요해요!!)

결국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기로 하고 학교 고시동으로 공부장소를 옮깁니다.

3. 2010년 세 번째 시험(2010년 1월-7월)

공부는 정확히 2009년 12월 28일에 시작했습니다. 2차 시험 이후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고, 압축적인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그 동안 보통 1,2월은 PSAT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1차에 많은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학원 모강 문제 푸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1월에는 2일에 한 과목, 2월에는 1일 한 과목 정도를 푸는 것으로 하고 대신 각 년도 PSAT 기출문제를

분석했습니다. 그 밖의 시간에는 행정법, 국제법, 국제경제학 등 2차 과목을 정리했습니다(2순환 동영상 강의 이용).

1차 시험 이후부터는 아예 고시동 기숙사에 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시동 사람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정말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고, 윗층에는 방, 아래층에는 열람실, 옆 건물에 구내식당이 있는 구조라 편하게 공부하기는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고시동 사람들과는 각 과목 3순환을 함께 들었고 과목별 스테디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끝까지 기본서를 보는 스타일로 공부했었는데 이번 시험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기본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3순환 시험문제+모범답안을 묶어 일종의 서브를 만들고 그것을 반복해서 보는 방향으로 공부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마음 맞는 사람들이 많아 이번에는 공부가 심하게 힘들지도 않았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를 포함, 외시 2명 행시 5명이 제가 속한 고시동 내 열람실에서 합격 했습니다

III. 과목별 간단한 팁

1. PSAT

2008년에는 각 과목 학원 모강을 10회씩 풀었고, 2009년에는 스테디를 이용해서 거의 모든 강사의 문제를 구해 풀었으며 2010년에는 기출문제 분석을 주로 하고 문제는 적게 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시험이 가장 점수가 높았는데 그 이유로 1. 기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구성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2. 세 번의 경험이 쌓였다. 3. 그 날 컨디션이 정말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3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지만, 1을 위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각 문제를 보면서 왜 이렇게 문제를 냈는지, 각 보기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헛갈리게 하려고 나온 건지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어떤 게 오답이고 왜 그 보기를 냈는지 감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2. 외국어

(1) 영어

외국어는 매일 꾸준히 하는 방법 뿐입니다. 4-5명이 스터디를 구성하여 매일 아침에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교재를 말씀드리면,

영어순해/정영한 자료/이현석 자료/한형민 자료

한영하나 영한하나 했고, 매주 토요일에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2010년 공부할 때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롭게 번역을 하며 연습을 해보지는 못했고, 그 때까지 한 번 했던 한영 문제를 하루에 하나씩 외우는 방식으로 감각만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중국어

시사중국어, 중국신문따라잡기, 중국어명연설 등 시중에 나와 있는 시사관련 중국어 책을 구입하여 번역역습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4-5명이 스터디를 구

성하고 통번역대학원에 다니는 선생님을 초빙하여 주1회(일요일 저녁) 강의를 듣고 첨삭을 받았습니다.

중국어 역시 2010년에는 새롭게 공부하지는 못했고,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복습하고 암기하는 방향으로 공부했습니다.

2. 행정법

공부할 때는 가장 자신 있고, 재밌던 과목이었는데 막상 시험장 가서는 시험볼 때마다 힘들었던 과목입니다.

저는 여러 강사 수업을 들어서 저만의 학설(?)스럽게 각 부분을 정리했는데 이것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결과도 크게 좋은지는 모르겠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답안이 전형적이지 않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 이것이 실제 시험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였지만 일종의 모험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위에서 볼 때 단기간에 합격한 사람들은 한 강사를 정해서 그 학설과 논리로 일관성 있게 공부해나간 사람들입니다. 그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 중요하지만 ‘암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는 판례 문구를 외워서 그대로 쓰려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3. 국제법

방대한 양으로 시작부터 무서웠던 과목입니다.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김대순 교수님의 국제법론을 수 차례 읽었습니다. 이후 순환이 올라가도 기본서는 계속해서 회독수를 늘려갔기 때문에 몇 번 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내용이 책 어디쯤

에 있다” 하는 감이 생길 정도 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본서와 논문만 보다가 2010년 시험 때에는 요약집을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터디를 만들어서 저녁 식사 전 30분 정도 하루에 한 요약씩 1조부터 내용을 외워 쓰는 방법이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국제경제학

저는 경제학 기본강의와 1순환을 듣고 국제경제학을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개념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제학을 먼저 들을지 여부는 자신이 판단할 몫인 것 같아요.

김인준 교수님 국제경제론으로 공부하며 김진욱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모의고사의 ZIP을 풀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제경제학은 가장 고민 없이 그냥 학원수업 따라 가며 쉽게 공

부한 과목입니다.(과목이 쉽다는 게 아니라 공부법이 확실하다는 거^^)

IV. 마치며

생각나는 내용을 두서없이 적어서 많은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한다.”입니다. 오래 공부하다보면 웬지 세상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고, 주위의 다른 여건 탓에 내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남탓’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핑계라는 것을 가능한 한 빨리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지가 합불을 가르는 것 같습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고시는 정말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지 않고 공부하면 언젠가는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이 글이 지금 그 싸움에 지쳐 흔들리고 계시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